

구라보 - 슬럽사 등의 3가지 소재 중심으로 신소재 개발

구라보는 ① 컴팩트 슬럽사(compact slub yarn)를 사용한 “클리어 스카이 (Clear sky)”, ② 32번 딥(dip, 데님의 남빛을 쪽앞에 의하여 32번 딥 염색 - 딥 횡수가 많을수록 깊은 색이 난다)으로 보다 깊은 색, 붉은 색, 검은 색을 낸 “D.R.B.”, ③ 신세대 스트레치(stretch) “T-400” 의 3가지 소재를 기본으로 하고 이들의 특징을 서로 겹쳐 만든 또 다른 소재들을 신소재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년 동안 계속하여 깨끗한 맛을 찾는 경향에 러프(rough : 거칠은)한 테이스트(taste : 맛, 기호)를 가미하여 컨트라스트(contrast)와 샤프(sharp)한 티를 내고 있다.

“클리어 스카이”에 코팅한 것은 그 동안의 광택감과 얼룩실이 천의 표면에 잘 보이도록 한 러프한 컨트라스트가 새로운 표정을 보여준다. “닥터 나이프 (doctor knife)라고 일컫는 구라보의 독자적인 섬세한 코팅으로 “클리어 스카이”의 유연한 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탁 가공으로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하게 하여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특수 무연(無燃) 방적사 “파논”으로 제작한 데님 천을 제안하였다. 무연사는 생산 공정상 데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었는데, 사염 기계를 개량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부드러운 태와 가벼운 장점을 겸하고 있다.

캐주얼 소재에는 중백(中白 : 중간 정도의 흰색)이 특징이며, 진즈라이크 (jeans-like)한 컬러 시리즈, 세탁하여도 천이 구겨지지 않는 “워시 앤드 드라이(wash and dry)” 등을 제안하였다. ♣